

2024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4. 3. 27.(수) 9:00~11:3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4명 중 11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이영화(의장), 김미라, 이동일, 이주형, 신현숙
 - 나. 직원대표 : 조현미(부의장), 한주호
 - 다. 조교대표 : 박한빛
 - 라. 학생대표 : 정포근
 - 마. 동문대표 : 이귀우, 문지현
4. 불참자 : 백성기(외부위원), 김태현(외부위원), 신승연(학생대표)
5. 심의안건
 - 1)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학과 신설(안)
 - 2) 정보보호학부 명칭 변경(안)
 - 3)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2025~202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및 모집단위 명칭 변경(안)
 - 4) 직제규정 개정(안)
 - 5) 서울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1.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학과 신설(안)

기획처장이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학과 신설(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한 한국어능력 기준에 관하여 질문하다.

- 현재 우리 대학은 정부에서 정한 외국인 선발을 위한 한국어능력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학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토픽 3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타대학과 동일하게 선발 기준을 한국어능력 기준 2급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의 경우 별도의 분반에서 외국인 유학생들만 수업을 듣게 되며 1학년 때 한국어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인 3급을 유지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전담학과 신설 시 교수 배정 방안에 대해 질문하다.
 - 관련학과의 교수가 원 소속 학과를 유지하는 겸무교수로 배정 하고자 하며 교수를 신규로 초빙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다. 2025년까지 외국인 전담학과 신입생 수요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규 교원 채용이 아닌 겸무교수 체제로 운영하고자 하며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추후 신규 교원 채용도 검토될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 서울여대만의 차별화된 외국인전용학부 개설이 요구된다고 질의하다.
 - 우리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시작할 때 그 가능성에 대해 교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은 우리 대학의 학생관리 및 교육 제공이 외국인 유학생의 기대수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유학원 인터뷰와 타대 외국인 전용학부 사례를 참고하여 안을 만들었다고 답변하다.
- 커리큘럼 구성 시 관련학과와 관련교수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질의하다.
 - 경영학과와 언론영상학부 교수 각 1명이 커리큘럼 구성에 참여했으며, 커리큘럼에 한 과목이라도 포함된 학과에는 공문으로 내용을 보내어 의견 수렴하였음을 설명하다. 무전공 입학생의 풀림이 예상되는 학과와 외국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중복되기 때문에 학과수요를 분산하는 취지에서 전용 학부를 신설한 측면이 있어, 관련학과 교과목 포함이 불가피한 부분이었음을 설명하다.
-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신설은 대학의 재정적인 문제와 더불어 여러 원인으로 인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다하여야 한다. 학부 규모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론영상학부 교과목이 커리큘럼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른 강사 초빙 등을 포함한 학과 운영 상 현실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관련 외국인 학생들의 의견수렴 결과 혹은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 교과목개편 등, 주관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에 대해 질문하다.
 - 위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자원 투입의 문제이며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신설에 따른 분반에는 추가 자원 투입이 요구된다. 해당 학생들의 현재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지라 일괄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과 신설 시, 강사를 초빙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이해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또한,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관리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 국제화의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 안정화 목적도 있으므로 자

원 투입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다. 수요 조사는 완료했지만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후 1년 동안의 현실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서 추가 자원 투입도 가능성을 설명하다.

- 수요 조사 및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관련 커리큘럼 설문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후 결과를 교수회의 및 공청회 등에 전달하였음을 설명하다. 대학평의위원회는 실무적인 단계에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검토를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메타적인 차원에서 안건들을 심의하는 회의이므로 상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전 단계까지의 상세 데이터 및 회의록 등을 요청 시 준비하겠다고 답변하다.

○ 외국인 유학생 모집 계획의 내국인 학생들 모집과 같은 교육부 승인 필요 여부 및 신입생 최종 합격자 확정 일자에 대해 질문하다.

-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요하며 교육부 지침에 따른 관련 규정 적용 여부 검토 후 교육부에서 승인을 하게 된다고 답변하다.
- 매년 3월을 기준으로 모집을 하며 올해 가을에 선발 이후 매학기 선발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 외국인 유학생 학생회 운영 관련 방안에 대해 질의하다.

-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만을 위한 학생회 또는 자치회 운영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으나 40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간 정보교류 및 의견 반영을 위해서라도 자치회 구성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와 서비스가 현재 50주년기념관에 위치한 국제교류팀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단 사무실 인근에 외국인 유학생 자치회를 위한 공간 확보 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다.

○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운영방안 및 교과과정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대학평의위원회 재심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TF팀을 구성하여 교수 충원과 교과 과정에 대한 개선(안)을 2024학년도 하반기 내에 제출한다.’ 는 내용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는 방안이 논의되다.

- 대학평의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신설은 승인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안하다.

○ 의장이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학과 신설(안)에 대하여 ‘학교에서 TF팀을 구성하여 교수 충원과 교과 과정에 대한 개선(안)을 2024학년도 하반기 내 제출한다.’ 는 내용을 전제로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으로 발의하니 대학평의원들이 동의하고 재청하여 의장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2. 정보보호학부 명칭 변경(안)

기획처장이 정보보호학부 명칭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이 정보보호학부 명칭 변경(안) 승인을 발의하니 대학평의원들이 동의하고 재청하여 의장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3.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2025~202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및 모집단위 명칭 변경(안)

기획처장이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2025~202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및 모집단위 명칭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다.

- 인문자유전공 학생들은 인문대학에서만 전공 선택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다.
 - 인문자유전공 학생은 인문대학에서만 전공 선택이 가능함으로 답변하다.
-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선택 제한 여부에 대해 질의하다.
 -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인문계열/자연계열 구분 없이 전공 선택은 가능하나 인문계열/자연계열로 구분된 논술전형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해당 전형을 통해 본인의 적성을 파악 후 입학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하다.
 - 자율전공학부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자유전공학부 모집 전체 인원의 특정 학과로의 쏠림 현상은 예상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다.
 - 모수에서 제외된 예체능 계열과 기독교학과는 선택이 불가함을 추가로 설명하다.
- 의장이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2025~202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및 모집단위 명칭 변경(안) 승인을 발의하니 대학평의원들이 동의하고 재청하여 의장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4. 직제규정 개정(안)

기획처장이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이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을 발의하니 대학평의원들이 동의하고 재청하여 의장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5. 서울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기획처장이 서울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이 서울여자대학교학칙 개정(안) 승인을 발의하니 대학평의원들이 동의하고 재청하여 의장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6.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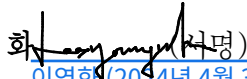
- 의장이 2024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전체공개에 대해 의견을 묻고 의원들이 승인하다.

7. 차기 회의 일정

- 의장이 2024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를 2024년 4월 24일(수) 오전9:30에 소집 예정임을 알리다.

의장이 11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4년 3월 27일

의 장 이 영 화  (서명)
이영화 (2024년 4월 3일 09:21 GMT+9)

부 의 장 조 현 미  (서명)
조현미 (2024년 4월 3일 18:00 GMT+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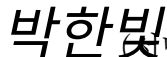
평 의 원 김 미 라  (서명)
김미라 (2024년 4월 3일 11:02 GMT+9)

평 의 원 이 동 일  (서명)
이동일 (2024년 4월 3일 11:38 GMT+9)

평 의 원 이 주 형  (서명)
이주형 (2024년 4월 3일 12:13 GMT+9)

평 의 원 신 현 숙  (서명)
신현숙 (2024년 4월 3일 14:13 GMT+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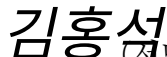
평 의 원 한 주 호  (서명)

평 의 원 박 한 빛  (서명)
박한빛 (2024년 4월 3일 10:13 GMT+9)

평 의 원 정 포 근  (서명)
정포근 (2024년 4월 3일 13:33 GMT+9)

평 의 원 이 귀 우  (서명)

평 의 원 문 지 현  (서명)
문지현 (2024년 4월 3일 19:38 GMT+9)

간 사 김 홍 석  (서명)
김홍석 (2024년 4월 3일 09:19 GMT+9)